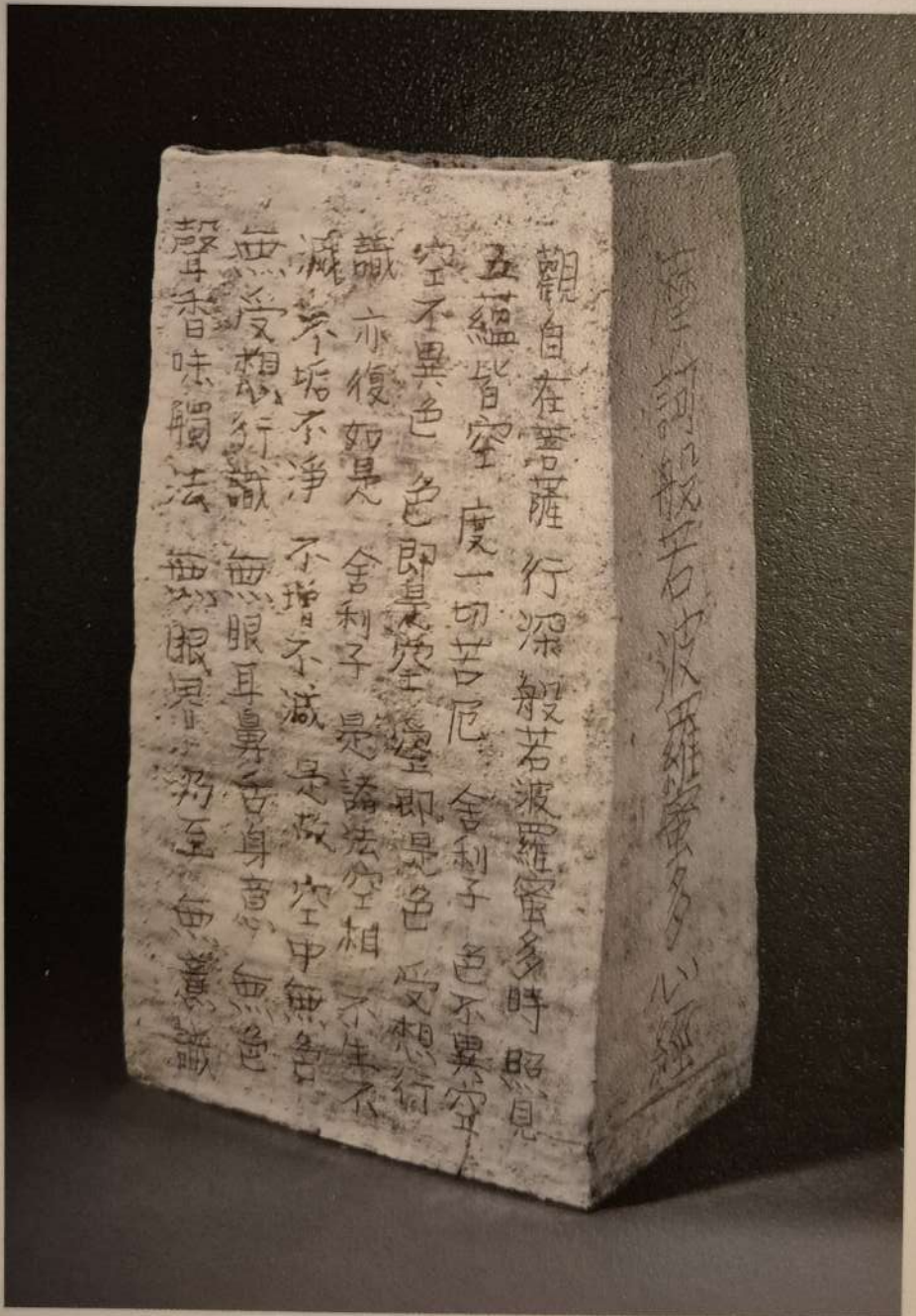


한국시인

2023년 Vol. 05



값 12,000원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The Korea Poet's Association

사막에 대하여 (Du désert)

장 샤를 도르즈 (Jean-Charles DORGE)

그곳에서 그들은
더 나은 대지를 보고 있는가?
이곳에서 우리는
술한 근심으로 울고 있을 때

풍요로운 사막은 물길을 다시 살려 내네.
태양 외투, 저 땀 흘리는 피부를 보시게나!
인간 외투, 지저분한 장식 옷일 뿐
나신裸身은 간 곳 없고, 낙수소리를 들어 보시게나!

더 나은 대지는 자신의 땅
무덤도 없는 죽은 이들의 불모지
머뭇거리는 그리고 묘연한 물의 불모지
슬그머니 노래가 술을 붓네!

선사받은 정신이
고통을 완화시키는

그들의 풍요로운 사막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장-샤를 도르즈



1954년 파리 출생. 시 전문지 《시의 순환대(La Ronde Poétique)》 창간(1983), 저널 《프로메테우스(Prométhée)》 편집장. 프랑스시인협회 주관 폴 베르렌 문학상(Prix Paul Verlaine 2016) 등 다수의 시 부문 콩쿠르에서 우수상 및 대상 수상. 프랑스어권 작가-시인협회 회장 및 프랑스시인협회 회장(2023-현재), 시집 『별이 빛나는 길(Les chemins étoilés)』 외 다수.

파고드는 섬세함은...(Pénétrante délicatesse...)

미셸 베나르(Michel Bénard)

진주빛 감도는 그대의 분홍빛 심장으로
파고드는 섬세함,
우리의 애무는 우리 안에서
영혼과 육체 그 전율의 파장을 깨우고
우리는 열정의 숨결을 느끼네.
사랑의 불꽃으로,
알파벳 입문서는 불타,
타오르는 모습들,
우리의 시는
하늘 박공
중앙아치에 꼼짝 않고 묶여 있네.
다시는 우리를 찾지 않을
곧 사라질 신기루와 우리는 마주치고,
꺼칠꺼칠한
천년된 돌 위로
내려앉는
저 덧없는 빛의 연약함이여.
여기 모든 것이 보여주네

격렬함을, 우아함과 침묵을,
그리고 아름다움을.

미셸 베나르



1946년 프랑스 랭스 출생. 시인, 화가, 수필가, 예술 및 문학평론가. 프랑스 아카데미(Académie française) 콩쿠르 수상(2000), 프랑스정부 예술-문학 훈장 수훈자, 장 콕토(Jean COCTEAU) 콩쿠르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시 부문 콩쿠르 수상. 현 프랑스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하늘의 어루만짐(Les caresses du ciel)』 외 다수.

제3의 눈(Le Troisième Œil)

베로니크 프라바-피오(Véronique FLABAT-PIOT)

신성함의 한가운데에서, 존재를,
황금 태양처럼 뜨겁고, 순수한 사랑의 숨결을,
비가시적(非可視)인 우주의, 내면의 노래를 느낀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지워가는 고해의 기도와 같은...

조연을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
비할 바 없는 희망의 흐름 속에 빠져 보고저
고통스런 마음이 자신의 두려움을 회피하는
덧없는 포용의 환영을 만져 본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확신을 갖는다.
신의 발현인, 생명은 영원하리라,
무덤의 협곡을 바위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시선을 차단하는 방법을 부순다
우리들의 예감들은 존재에 근거하리라
그리고 황마를 관찰하고 화려한 고급비단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의 눈길에 호소한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끝없는 사랑의 불꽃이 반짝이는
생명의 본능을 따른다
물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엔 역부족인
추파를 던지는 저 검은 메두사!...

베로니크 프라바-피오



벨기에 출생, 1990년 시 입문. 프랑스정부 예술-문학 훈장 수훈자. 국제적 시콩쿠르 심사위원 및 강연 활동. 다수의 시 부문 콩쿠르 수상. 프랑스 시인-예술인 협회 부회장 역임. 현 프랑스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가슴으로 말해줘요(Dites-le avec le Cœur)』 외 다수.

영원의 빛(Reflets d'éternité)

르네 르 바르스(René LE BARS)

황혼의 펫빛 속으로
지평선이 잠기어 갈 때
꿈들이 태어나네.
하늘의 상처들 속으로
자연은 그의 죽은 팔들을 내밀고
운명의 잔가지들 위로
조각난 고통을 거네.
고통스런 기도
아무런 메시지가 쓰여 있지 않으므로
기다림만이 오직 가능한 모험이네.

밤의 방치 속에
정신은 한계를 잊고
모든 상징들을 불태우네.
샘물은 마치 보물인양
마지막 저녁 미광을 감추네,
자신의 장엄한 존재와
영원의 교묘한 힘을 불러 일으키는

뜨겁게 갈망하는 무한의 빛을.

비밀의 수호자,
가벼운 전율이 이는 아침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하얀 침대보를 펼쳐 너네



르네 르 바르스

시인 및 소설가, 문학 교사, 번역가, 교과서 저자, 프랑스로부터 교육훈장 수훈자, 프랑스어 수호 활동가, 해외 과학아카데미 주관 '프랑스 르네상스상' 심사위원장, 시집 『장미빛 당나귀와 또 다른 환상들(L'âne rose et autres faribolais)』 외 다수.

옛 영혼들 (Les âmes du passé)

다니엘 밀탕베르제 (Danielle MILTENBERGER)

영혼들은 조심스레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고통을 보살피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강요하진 않지만
당신에게 슬며시 스며듭니다.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들은 금지된 게 아니라고 당신에게 말해 주기 위해
서지요.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단련시켰지요
비록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할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추억을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기도를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내내 당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당신의 십자가 무게를 덜어준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으로 인정하도록 해보세요
영혼들은 당신에게 충실할지니.

다니엘 밀탕베르제



프랑스 북서부 브레스트 출생. 파리에서 경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 참여. 2014년부터 프랑스시인협회 집행부에서 활동. 프랑스시인협회 사무총장 역임. 시집 『파도소리 들으며 (A l'écoute des vagues)』의 다수.

돌연 대담함이(Soudain l'audace)

니콜 랑동(Nicole Randon)

발코니 저 멀리
사중주단이 음을 맞추고 있다
바람의 감미로운 숨결이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왈츠로 변한다.

생각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과거의 일들이 다시 모여들고
먼 곳의 리듬으로 채색된다
무기력한 파반느 무곡
그리고 방향 잃은 트랜스 음악
모든 박자를 무시하며
음악은 굴레를 부순다

미친 듯 술잔을 비우고
무례함을 참을 수 있을까
이 파도가 밀려옴을 느낄 때
망상의 끝자락에서

마귀 들린 글자들로 주조된
단어의 날이 부서진다

알 수 없는 것 속으로 사라져 간다
돌연 말의 대담함이

니콜 랑동



현대문학 교수 자격증 취득, 명문 앙리4세 고교(Lycée Henri IV) 교사
역임, 시 글방 '시-나의 시상(La Poésie-Ma Muse)' 운영, 프랑스시인협
회 월요 시인모임(Lundi des Poètes) 공동주관, 시집 『시름길(Chemin de
transverse)』 외 다수.

음악은 그림자를 감싸고 말의 빛을 여네

(La musique cerne les ombres et ouvre la clairière des mots)

크리스티앙 마라프라트(Christian MALAPLATE)

음악은 그림자를 감싸고 말의 빛을 여네.
박동하는 말들, 불타오르는 말들, 삶의 오목한 허리춤에 새겨진 말들,
시간의 신호기들이 우연한 계기가 되어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이미지들로부터 올라오는 저 빛이 밀려오네.
이 다정한 빛은 제 몸을 밤에 엮어매네.
글 적힌 종이들의 원이 몸을 일으키네
감동의 구름다리들을 향하여 자그마한 비밀 더미들을 만들기 위하여.

거센 바람의 애무와 폭력에 대한 화답으로
관능을 자극하는 소리를 속삭이는 그 모든 원천이 있네.
그리고 그 불타는 사랑의 말들이
충족되지 않은 영혼과 입가에서 요동치네.

스테인드글라스의 저 깊은 빛은
영성체 순간들의 뒤엎힘 속 격한 꽃들 사이에서

여러 영혼과 목소리의 오고 감을 밝히는구나.
시간은 이상아릇한 언어로 어둠과 욕망을 담은,
달콤할 수도 짝짜름할 수도 있는 추억을 남기는,
사랑 노래의 애수를 불러일으키네.

낮에는 감정 운항 일지에 드러나는 다정한 산책로인
미래의 감정 교차로로 향하는구나.
모든 것이 나무와 돌 속에 숨겨진 언약으로 되 돌아오네.



크리스티앙 마라프라트

국경없는시인회 부회장, FM 라디오 운영 등 시를 주제로 한 활발한 방송 활동, 프랑스시인협회 주관 빅틀 위고 콩쿠르(Prix Victor Hugo 2009) 수상, 시집 『안개 낀 아침의 우유빛 장미(La rose lactescente des matins vaporeux)』의 다수.

지하의 사람들(Les troglodytes)

장-피에르 폴락(Jean-Pierre PAULHAC)

살아 남아 지하에 거동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어지고 있다
죽음의 전철
불 꺼진 열차칸들 속에서

잔해의 밤 속으로
레일들이 사라진다
끔찍한 승강구 아래
정거장들이 문을 닫는다

밤의 끝으로
통로들이 사라진다
희망의 교차로에
잊혀진 환승 정거장들

부조리 속에 파묻혀
이리저리 유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를 믿는 광기를 간직하기 위해

스베트라나가
그녀의 딸 이리나의 손을 잡는다
지긋지긋한 약몽 속에 떠도는
동화 속의 두 요정

스베트라나가
그녀의 딸 이리나의 손을 잡는다
지긋지긋한 약몽 속에 떠도는
동화 속의 두 요정

거짓 태양이 내리쬐는 밖에서는
죽음이 다발로 터진다
지하 배수로 깊숙한 곳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든 상황이 이러한데도
쭈뼛 맨홀 위
금발의 스베트라나와 이리나는
마음의 갑옷 속에
행복한 여명의 약속을 품고 있다

장-피에르 폴락



시인 및 소설가. 비교 현대문학 박사. 중학교 교장 역임. 아프리카 근
무경험을 살려 프랑스-아프리카 문제를 다룬 수필집 『남-북대화
(Dialogue Nord-Sud)』 출판, 프랑스시인협회 부회장 역임. 시집 『별들의
흔적(Trouces d'étoiles)』 외 다수.

좋은 날(Bon jour)

마크 니외브자에르(Marc NIEUWJAER)

시선을 스쳐간다
아침 인삿말을 거둔다
사랑의 간단한 몸것들을
행복의 씨앗을

서로 사랑한다

한순간의 공간인
균중의 한가운데에서

미소의 품 안에서



마크 니외브자에르(Marc NIEUWJAER)

1952년 출생. 시골의사 정년 후, 장애노인 요양원 총괄의사로 활약 중. 사회정의 및 여성인권 옹호자. 소설 『찌기폴 사이길(Un chemin au milieu des certians)』 출판. 프랑스시인협회 및 불어권 작가-시인협회 발간 시집에 다수 시 게재, 시집 준비 중.

귀스타브, 외제브, 노에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Gustave, Eusébe, Noémie et les autres)

제라르 올리비에(Gérard OLIVIER)

나는 사랑 백신을 맞았지요 ; 다행히도 추가접종을 잊었습니다!

시간이 말했습니다 : 곧이지.

밤이 말했습니다 : 내일이야.

낮이 말했습니다 : 오늘 저녁이야...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그리고, 바로 그 찿날처럼, 우리는 사랑에게 말기고 오래도록 다시 떠났습니다.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구, 행복한 사람들은 문제도 없고 셔즈도 없다! 몸 기대고 잠들만한 것도 없네요 :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포옹하고, 신음하고 서로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사랑의 침대에서 셔즈 없이, 서로 바짝 기대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손에 손을 잡고, 잠듭니다, 미완성의 무수한 입맞춤의 교차로에서...



제라르 올리비에

파리 출생. 문학, 영화 및 방송분야 활약. 프랑스 시인-예술인 협회 주관, 빅토르 위고 콩쿠르(Prix Victor Hugo 2018) 수상 및 불어권 작가 예술인 협회 콩쿠르 금상 수상(2022). 시집 『긴 시간(Longue est la Tempse)』의 소설 및 시집 다수.

사랑(Amour)

엘리안 워르타도(Eliane HURTADO)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지
서로 꼭 잡은 우리의 손을
가는 길엔 별이 빛나는 밤이
펼쳐지고 있었지.

비밀처럼, 감미로운 목소리,
나는 사랑의 말들을 속삭였지
고뇌의 바람은
곧장 잠잠해졌다고.

나를 사랑해 주오 내 사랑이여,
경이로운 이 길을 함께 갑시다.

당신 안에, 우주의 안개와
침묵의 안개가 다 모였어요.
시냇물이 투명하게 돌들을 비추며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

내 말들의 메아리는
천상의 하모니의
우주의 나선을 따랐고
눈을 감으면서
나는 아직도
반항하는 환희의 음을 듣지요.

당신도 들리시나요?

나를 사랑해 주오 내 사랑이여,
경이로운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엘리안 워르타도

프랑스 파리 출생. 시인, 화가, 고화 복원기능자. 다수의 문학 저널 및 작품선집 출판 협업. 다수의 미술 콩쿠르 수상. 이태리 TREVISO 콩쿠르 시 부문 수상(2014). 현 프랑스시인협회 사무총장. 시집 『구름걸이 (L'accroche nuages)』(2017).

11 poèmes français

« Du désert »

Jean-Charles DORGE

Voient-ils de là-bas
La terre meilleure
Quand ici l'on pleure
De tant de tracas ?

Le riche désert fait renaître l'onde
Manteau de soleil, vois suer les peaux !
Manteau de mortel, sales oripeaux
Nulle nudité, oyez l'eau qui tombe !

La terre meilleure est son propre sol
Ingrat par les morts qui n'ont pas de tombe
Ingrat quand l'eau doute et se dévergonde
Qu'abreuvent les chants en secret alcool !

Voyons-nous nous -mêmes
Leur riche désert
Où l'esprit offert
Adoucit les peines ?

« Pénétrante délicatesse... »

Michel BÉNARD

Pénétrante délicatesse
En ton cœur de rose nacrée,
Nos caresses éveillent en nous
De frissonnantes ondes,
De corps et d'âme nous ressentons
Le souffle de la passion.
Dans ces feux d'amour,
L'abécédaire est foudroyé,
Les voyelles embrasées,
Notre poème est rivé
Sous l'arche centrale
Du fronton du ciel.
Nous croisons de fugitifs mirages
Qui ne nous reviendront plus,
Telle l'éphémère fragilité
De la lumière se déposant
Sur la rugosité
Des pierres millénaires.
Tout ici témoigne d'âpreté
D'élégance, de silence
Et de beauté.

« Le Troisième Œil »

Véronique FLABAT-PIOT

Sentir une présence, au cœur de l'impalpable,
Un souffle d'amour pur, chaud comme un soleil d'or,
Un chant intérieur, tel le confiteor
De l'invisible Tout, gommant l'intolérable...

Entendre cette voix, murmurant un conseil,
Palper l'illusion de la fugace étreinte
Où le cœur douloureux abandonne sa crainte
Pour plonger dans le flux d'un espoir sans pareil.

Avoir la certitude, absolue et parfaite,
Qu'éternelle est la Vie, en son esprit divin,
Que pour combler de rocs le sépulcral ravin
Il suffit d'intégrer l'annonce du prophète...

Rompre la carapace, obturant le regard,
Que nos pressentiments posent sur l'existence
Et faire appel à l'œil qui nous prête assistance
Pour observer le jute et voir un fin brocart...

Suivre l'instinct vital où scintille la flamme
De l'Amour infini, perdurant à la mort,
Cette Méduse noire à l'œillade qui mord
Mais pourtant impuissante à détruire notre âme !...

« Reflets d'éternité »

René LE BARS

Les rêves prennent naissance
Quand l'horizon se noie
Dans le sang des crépuscules.
La nature tend ses bras morts
Dans les déchirures du ciel
Et accroche ses lambeaux de solitude
Aux ramures du destin.
Prière douloureuse
L'attente est la seule aventure possible
Puisqu'aucun message n'est écrit.

Dans l'abandon de la nuit
L'esprit oublie les limites
Et enflamme tous les symboles.
La source cache comme un trésor
Les dernières lueurs du soir,
Reflets d'un infini ardemment désiré
Qui impose sa présence majestueuse
Et la force tranquille de l'éternité.

Gardienne des secrets,
La beauté frissonnante du matin
Étend ses draps blancs.

« Les âmes du passé »

Danielle MILTENBERGER

Les âmes vous accompagnent discrètement
Et veillent sur vos tourments.
Elles ne dictent pas votre conduite
Mais vous imprègnent délicatement
Pour vous mener sur un chemin de réussite
Et vous dire qu'elles ne sont pas interdites.

Elles ont forgé votre être
Même si vous refusez de l'admettre.
Indiciblement, vous acceptez le souvenir
De tous ceux que vous avez aimés.

Elles sont là, dans l'atmosphère du jour
Même si la prière n'est pas votre choix.
Elles vous ont construit au long cours
Et vous savez qu'elles allègent votre croix.

Aimez à les reconnaître
Les âmes vous seront fidèles.

« Soudain l'audace »

Nicole RANDON

Un quatuor s'accorde
Au loin d'un balcon
Un souffle suave de vent
S'accroche aux branches
Vire à la valse.

Non-vécu impensé
La passé se regroupe
Se teinte de rythmes lointains
Fragile pavane puis transe sans boussole
La musique rompt la bride
Ignorant toute mesure

Peut-on retenir l'insolence
Vider la coupe affolée
Quand on sent venir cette vague
Lame de mots qui déferlent
Coulée de lettre endiablées
Au bord du délire

S'évanouir dans l'inouï
Soudain l'audace aux lèvres

« La musique cerne les ombres et ouvre la clairière des mots. »

Christian MALAPLATE

La musique cerne les ombres et ouvre la clairière des mots.
Des mots pulsés, des mots braisés, des mots frappés au creux des reins de la vie
Au détour des sémaphores du temps
Et puis vient cette lumière qui monte de la pluie d'images
Cette lumière fraternelle s'enlace à la nuit.
Le cercle des pages écrites se dresse
Pour former un petit tas de secrets vers des passerelles d'émotion.

Il y a toutes ces sources qui murmurent des sons troublants
En réponse aux violences et aux caresses des grands vents.
Et puis tous ces mots d'amour brûlants qui palpitent
A proximité des lèvres et de l'âme inassouvie.

Cette lumière profonde des vitraux éclaire
Le voyage des voix et des âmes
Parmi les fleurs âpres dans l'entrelacement des moments de communion.
Le temps remue une mélancolie de chansons d'amours,
De nuits et de désirs dans une langue étrange
Qui laisse une mémoire sucrée ou salée.

Le jour ouvre sur une future traversée des sentiments,
D'une promenade tendre qui s'affichent dans un carnet de bord des émotions.
Tout revient aux paroles cachées dans les arbres et les pierres.

« Les troglodytes »

Jean-Pierre PAULHAC

Les troglodytes de la survie
Voyagent à l'arrêt
Dans les rames éteintes
Du métro de la mort

Les rails se perdent
Dans la nuit des gravats
Les stations se ferment
Sous les écoutes de l'horreur

Les couloirs s'en vont
Au bout de la nuit
Correspondances oubliées
Au carrefour de l'espoir

Vagabonds de nulle part
Enterrés dans l'absurde
Pour conserver malgré tout
La folie de croire au futur

Svetlana tient la main
De sa petite Irina
Deux fées de légendes bleues
Errant dans l'odieux cauchemar

Dehors au soleil menteur
La mort explose en gerbes
Au fond des boyaux de la terre
On croit que l'on peut vivre

En dépit de tout Svetlana et Irina
Cheveux de blé sur regard d'azur
Portent dans l'armure de leur cœur
La promesse d'une aube heureuse.

« Bon jour »

Marc NIEUWJAER

Effleurer un regard
recueillir un bonjour
simples gestes d'amour
semence de bonheur

s'aimer

au milieu d'une foule
l'espace d'un instant

dans les bras d'un sourire

« Gustave, Eusèbe, Noémie et les autres »

Gérard OLIVIER

J'ai été vacciné contre l'amour ; heureusement, j'ai oublié le rappel !

Le temps avait dit : c'est pour bientôt.

La nuit avait dit : C'est pour demain.

Le jour avait dit : c'est pour ce soir... et rien n'arriva.

Alors, tout comme au premier jour, on s'en remit à l'amour et l'on repartit pour longtemps.

Je t'aime, tu m'aimes, les gens heureux n'ont pas d'histoire et pas de chemise non plus ! Il n'y a pas de quoi s'endormir là-dessus :

Et pourtant, ils s'endorment sans chemise, blottis l'un contre l'autre, la main dans la main, cœur contre cœur dans le lit de l'amour qui en a vu tant d'autres s'enlacer, se plaindre se déchirer, aux carrefours des baisers inachevés...

« Amour »

Eliane HURTADO

Personne ne nous a vus
Les mains entrelacées
Tandis que la nuit bleue
Tombait sur le chemin.

La voix douce, comme un secret,
J'ai murmuré des mots d'amour
Que le vent des tourments
S'est aussitôt approprié.

Aimez-moi amour,
Suivons ensemble ce chemin merveilleux.

En vous, la brume de l'univers
Et du silence se sont réunis
Pour faire chanter les ruisseaux
Aux pierres de transparences.

L'écho de mes paroles
A suivi la spirale universelle
De l'harmonie céleste
Et en fermant les yeux
J'entends encore
Le son joyeux qui résonne.

Et vous, l'entendez-vous ?

Aimez-moi Amour,
Suivons ensemble ce chemin merveilleux.